

홍윤숙 시 연구*

손미영**

|| 차례 ||

- I. 서론
- II. 전후(戰後) 폐허적 상황인식과 생명력의 수목적(樹木的) 상상력
- III. 일상성의 발견과 실존적 인식으로서의 시간의식
- IV. 존재의 소멸과 시원(始原)을 향한 근원적 회귀의식
- V. 결론

【 】

본고는 홍윤숙의 시세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한다. 1947년 등단하여 2015년까지 꾸준히 활동한 홍윤숙의 시는 미적 탐색의 과정을 통하여 인간 존재의 근원적 물음을 던지고 있다. 특히 삶과 죽음, 순간과 영원, 유한성과 무한성이라는 역설적 관계의 긴장은 홍윤숙의 시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이러한 서로 다른 속성들이 한 순간에 만나고 종합되는 과정을 통해서 시인은 존재 의미에 대한 심도 깊은 탐색을 진행한다. 이는 시간과 소멸의 문제에 깊이 천착함으로써 미학적 성취를 이뤄내는 홍윤숙 시세계의 특징이기도 하다.

첫 시집 『여사시집』에서 시작하여 『풍차』에 이르는 홍윤숙의 시편들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나무의 이미지는 생명력을 통한 회복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전후(戰後)의 폐허적 상황에서 발휘된 수목적(樹木的) 상상력은 고난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시 창작을 통해 삶의 의미를 모색하는 시인의 존재의식을 드러낸다. 시를 쓰는 것은 ‘현재’의 시간에 대한 침예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일상 속에서도 화자는 존재의 유한성이 영원과 겹쳐지는 충분한 순간을 발견한다. 그에 의해 포착되는 현재의 ‘순간’은 과거와 현재가

* 이 논문은 광운대학교 2016학년도 교내 학술연구비로 지원되었음.

**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대학 교수

혼용되어 미래로 이어지는 ‘지금시간’의 발견이기도 하다.

홍운숙의 시에서 무의식적으로 환기된 과거의 기억은 현재의 세계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 장면들은 개인적이고도 집단적인 역사가 현재에 집약되어 파편적으로 재현되는 문체적 장면들이며, 무한의 존재를 즉자적으로 인식하여 유한한 인간 주체를 재발견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간 근원을 향한 탐색은 존재의 시원을 찾는 뿌리 찾기의 여정으로 이어져, 부친과 조부 이전의 시대로까지 이어진다. 이는 어린아이가 되어 무한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유한한 존재로서 자신을 재정립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로써 홍운숙의 시는 존재의 근원을 향한 심도 깊은 성찰의 과정을 완성시킨다.

주제어 : 수목적 이미지, 소멸, 존재, 유한성, 무한성, 시간의식, 회귀의식

I. 서론

홍운숙은 1947년 『문예신보』에 시 「가을」을 발표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여, 2015년 타계하기까지 무려 7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꾸준히 활동하였다. 그가 발표한 시 작품들은 모두 고른 수준을 보여주는데, 특히 일상의 감상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까지 이르는 폭넓은 성찰을 절제된 언어로 시 속에 담아낸다. 즉, 홍운숙의 시세계는 일반적으로 ‘감상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평가되어 온 여성 시인들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인간의 정신과 그 존재의 본질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이성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한 예로서 주목을 요한다.

그의 시세계는 소멸과 영원에 관한 의식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묵직한 무게감을 획득하고 있는데, 특히 존재와 유한성, 순간과 영원성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에 깊이 천착한다. 그는 서로 상반되는 철학적 주제에 침윤하기보다는 일상의 삶과 이를 둘러싼 사물들에서 포착함으로써 시 속에서 미학적 긴장을 엮어낸다. 인간의 존재에 관한 근원적 문제를

영원성과 유한성의 긴장관계에서 이끌어내고자 한 미학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홍윤숙의 시편들과 시세계를 세밀하게 고찰한 논의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홍윤숙의 작품에 대한 기존 논의는 주로 여성 시인의 계보 하에서 홍윤숙의 위치와 그 의미를 정의하는 초기 연구들과 홍윤숙의 시세계 전체를 조망한 석사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그리고 첫 시집인 『여사시집』에서 『장식론』까지의 초기 시편들을 분석한 논의와 시극 『여자의 공원』을 분석한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홍윤숙은 여성 시인의 계보 하에서 1920년대의 김명순을 필두로 1930년대의 노천명과 모운숙을 거쳐 1950년대에 여성시의 위상을 강화한 시인으로 평가¹⁾된다. 특히 당대의 여성시인들과 달리 담담하고도 이성적인 어조로 여성의 의식을 지적으로 재현해낸 시인²⁾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김남조와 비교하여 애도하고 기억함으로써 전쟁의 외상기억을 극복하고자 하는 초기 여성적 글쓰기의 시도로서 재조명³⁾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홍윤숙의 시세계 전체를 조망한 연구는 주로 석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시적 전개 양상을 모색기에서 성숙기를 거쳐 관조기로 구분하거나⁴⁾ 감성적 특성으로 나누어 모성과 역사, 종교적 구원으로 나누어 고찰하고,⁵⁾ 어조에 주목하여 특징을 분석⁶⁾하여 홍윤숙 시 전체의

1) 허영자·한영옥, 『한국 여성시의 이해와 감상』, 문학아카데미, 1997.

2) 김현자, 「전쟁기와 전후의 시(1950~1961)」, 오세영 외, 『한국 현대시사』, 민음사, 2007.

3) 이경수, 「1950년대 여성시의 지형과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 김남조와 홍윤숙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1, 2009.; 이은영, 「1950년대 여성시에 나타나는 애도와 우울- 김남조와 홍윤숙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4, 2015.

4) 김귀희, 「홍윤숙 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홍윤숙 시 연구」, 『비평문학』 20, 2005.

5) 엄경희, 「홍윤숙 시인의 삶과 시정신」, 『숭실어문』 제17집, 2001.; 유영례, 「홍윤숙

전개 양상을 밝히고 있다. 한편 김인경은 야스퍼스의 실존의식에 입각하여 홍윤숙의 초기 시에 나타나는 실존의식을 면밀히 밝히고자 하였으며,⁷⁾ 최근에 오윤정은 ‘타관’의 공간성에 주목하여 홍윤숙 시의 특질을 검토⁸⁾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은 홍윤숙의 시편을 성실히 읽어내며 그 문학적 성취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주로 초기 시 연구에 집중하여 진척되어 왔으므로 시인의 시세계를 전체적으로 읽어내며 이를 관통하는 중심적인 문제의식인 소멸과 시간에 대한 세밀한 논의들은 비교적 희소하다. 홍윤숙 시인의 시편들이 일상의 순간과 인간 존재의 유한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시원을 탐구하는 과정에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분명 주목할 만한 주제이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작(詩作)에 관한 산문들 속에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시인으로 명확히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홍윤숙은 상징 질서 내에서 이미 아버지의 이름을 체득한 여성 ‘시인’이었다. 그러므로 홍윤숙의 시세계 전체를 ‘여성적’이라는 레토릭을 벗어나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여성적 글쓰기’에 내재한 이미지-유평피아로서의 모성, 생명, 히스테리적 저항성-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시각에 입각한 여성시 읽기의 단초를 모색하는 한 시도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고는 홍윤숙의 『여사시집』에서 『장식론』에 이르는 초기 시집에서부터 『일상의 시계소리』와 『타관의 햇살』 등을 거쳐 『낙법놀이』, 『실낙원의 아침』에 이르는 후기의 시집에 실린 시편들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미지와 사유의 발전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의 유한성과 영원의 시간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시의 이미지와 사유의 전개 과정에서

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6) 배옥주, 「홍윤숙 시의 여조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7) 김인경, 「홍윤숙 초기 시의 실존 의식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40, 2013.

8) 오윤정, 「홍윤숙 시에 나타난 ‘타관’의 공간성 연구」, 『여성문학연구』 38, 2016.

구현되는 방식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그 변모의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이로써 한 시인의 시세계에서 인간의 근원적 본질에 대한 질문들이 어떻게 태생하여 성장하고, 이를 문학적으로 그려내는가에 관한 한 사례를 내보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Ⅱ. 전후(戰後) 폐허적 상황인식과 생명력의 수목적(樹木的) 상상력

홍윤숙은 1962년 첫 시집인 『여사시집(麗史詩集)』을 엮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麗史란 十餘年前 釜山 避難 당시 어느 스승이 지어주신 이름, 그분의 뜻을 고맙게 생각하여 『여사시집』이라 하였다.”⁹⁾ 이 시집은 첫 시집이자, 십여년 동안의 작업을 묶은 것이기도 하다. 4~5년의 간격을 두고 출간된 이후의 시집들에 비해 십여 년이라는 긴 기간을 아우르게 된 이 첫 시집은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현실에 영향 받은 바가 크다. 수록된 대부분의 시편이 1950년대에 씌어졌을 뿐만 아니라, 후기에서 밝힌 바대로 시집의 제목 또한 이른바 땅 끝의 경험이었던 피난지 부산에서 지어진 이름이었다.

레니타 살레츨은 거대한 폭력을 겪은 주체가 정신적 외상으로서의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을 연구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불안은 사람들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바로 그 조건이기도 하다.”¹⁰⁾ 홍윤숙은 전쟁의 와중에서도 폐허에서 피어

9) 홍윤숙, 『麗史詩集』, 동국문화사, 1962.

10) 레니타 살레츨, 박광호 옮김, 『불안들』, 후마니타스, 2015, p.40.

날 생명력과 나무의 끈기를 노래했다. 그녀 스스로 고백한대로 이 시절은 “처음으로 시인이 되는 꿈을 꾸었고 또 사랑의 아픈 시련을 겪기도”¹¹⁾ 한 청년의 시간이기도 했다. 한국전쟁은 그녀 내부에 자리한 열망을 방해하는 현실적 요인이기도 했으나, 동시에 ‘역사’와 ‘폭력’이라는 거대한 힘의 경험이기도 했다. 이 두 가지의 상충하는 내부와 외부의 에너지는 시인으로 하여금 문학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세계에 절망하기보다는, 시를 계속해서 씀으로써 삶의 의미와 그 의지에 눈을 돌리게 하였다.

따라서 첫 시집인 『여사시집』을 포함하여 비교적 초기에 해당하는 홍운숙의 시편들은 의지적인 어조로 고난을 이겨내는 생명력을 회구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전쟁으로 인해 참혹하게 무너진 폐허를 바라보면서도, 시인의 시는 그 ‘폐허’가 주는 절망이나 감상적 슬픔에 빠져들지 않는다. 예컨대 피난지에서 서울을 그리워하는 시 『가고 싶다 폐허로 변한 거리일지라도』에서도 그는 “그 모든 것이 포탄에 흔적없이/부서져 없어졌다 한들/나는 슬퍼하지 않으리라”¹²⁾고 외친다. 이미 서울은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부서지고 폐허가 되어, 이전의 평화롭던 과거의 추억을 찾아볼 수 없는 도시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시인은 “타다 남은 기왓장” 사이에서 피어나는 한 포기 꽃의 싹에 시선을 던진다. 폐허 속에서도 자라는 작은 생명 이 있기에 그곳은 폐허에서 재생의 장이자 반드시 재건될 도시로 재탄생한다.

이처럼 『여사시집』과 『풍차』의 작품들에서 두드러지는 생명력에 대한 신뢰는 전쟁 이후의 황폐한 한국 사회 또한 반드시 재생되리라는 믿음에

11) 홍운숙은 태평양전쟁에서부터 한국전쟁에 이르는 전쟁에 의한 기억들이 자신의 감성 체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고백한 바 있다.(홍운숙, 『나의 삶, 나의 문학』, 『태양의 건넌마을』, 문학사상사, 1987 참조) 이러한 전쟁 체험의 기억들은 홍운숙 시인의 여러 시편에서 회상되거나, 시어와 이미지의 형태로 종종 드러난다.

12) 홍운숙, 『가고 싶다 폐허로 변한 거리일지라도』, 위의 책, pp.60-62.

기초한다. 이 두 시집에 실린 시편들은 세계의 완전한 리셋(reset)이라는 열망에 사로잡히는 대신, 역경을 딛고 성장하는 생명의 힘을 그려낸다. 그것은 “한덩이 화환처럼 피어오르는 목숨”¹³⁾처럼 강렬한 원색의 이미지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주로 굳건하고도 덩덤한 나무의 생명력으로 형상화된다.

폭양과 凍死의 무서운 계절에도
 끝내 이겨야 할 樹木의 운명은
 항시 젊은 戰士의 강렬한 최후와도
 같았음을
 한 방울 푸르고 싱싱한 樹液을 위해
 온몸의 살갗은 살살이 해를 향해
 매달라갔고
 넓으나 넓은 大地 위에 발돋움 든든한
 자리를 위해
 밤마다 樹心은 눈물 지었으니

이제는 아무것에도 傷念하지 않을
 한 그루 의젓한 樹木이리다

어찌다 지나가는 暴風雨에도
 간혹 태양이 뜨지 않는 빈 하늘에도
 담담한 忍耐와 넉넉한 寬容,
 깊은 憂愁는 안으로 안으로만 흘러가는 것

-「樹木의 書」 부분¹⁴⁾

13) 홍윤숙, 「항가」, 위의 책, p.17.

14) 홍윤숙, 「樹木의 書」, 『麗史詩集』, 동국문학사, 1962.

여름의 햇살은 강렬했으며 겨울의 추위 또한 엄혹했다. 그러나 나무의 생명력은 이러한 고난과 역경마저도 인내하며 생장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마치 전사처럼 시련을 이겨내며 마침내 성장해낸 한 그루의 나무는 “이제는 아무것에도 꺾이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것에도 쉽게 상처입지 않을 것이다. 나무의 생명력은 꽃처럼 환하게 피어나거나 불처럼 강렬하게 타오르지 않는다. 상처를 나이테로 새기고, 척박한 땅에도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담담하고도 강인한 생명력이다. “안으로 안으로만 흘러가는” 나무의 생명력은 외부의 역경을 견뎌내는 힘이자 꽃들이 모두 지고 난 후에도 “벽찬 목숨의 계절”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만든다.

시인이 고난을 인내하고 이로써 열매를 맺어내는 나무의 이미지에 주목하는 것은, 역사의 질곡을 내부의 에너지로 승화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일 것이다. 폐허가 된 전후의 풍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에 주목하였듯이 강렬한 태양의 열기도 견뎌내는 나무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상처마저도 생명의 힘으로 전환하는 생의 법칙을 향한 강한 신뢰를 드러낸다. 홍운숙의 시편들은 처참한 현실을 정밀하게 묘사하거나, 영탄조의 탄식을 통한 감정의 극대화를 피하지 않는다. 비극의 와중에도 지속되는 삶의 본질을 나무의 생애 비견하여서, 정적인 가운데에도 내면에 흐르는 살아있는 존재의 생명력을 포착해낸다. 이로써 담담한 외면과 대별되는 내면의 강렬한 열정으로써 균형감 있는 미적 역동성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처럼 나무는 생명력에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찾아내는 홍운숙의 시에서 주요한 이미지로 활용된다. 주지하다시피 땅과 하늘을 잇는 나무의 상징은 그 수직적 이미지로 인하여 남근 형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¹⁵⁾ 그러

15) 이경수는 홍운숙의 초기 시편들 속의 나무가 여성적 상징으로서 우주적 이미지와 연관된다고 언급한바 있다. 그러나 나무의 주요한 상징 중 하나가 남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리어 긍정적인 부성의 생명력을 활용하여 세계의 회복을 상상한다는

나 홍윤숙의 시에서 나무는 부성적(父性的) 존재의 상징으로서 자궁과도 같은 생산성을 내재한다. 나무는 과실을 제공하므로 농경 사회의 생존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자, 지숙과 비옥함의 상징이었다.¹⁶⁾ 그리고 이러한 풍요로운 나무의 이미지는 특히 『과원일기』 연작에서 두드러진다.

『과원일기』 연작시에서 시인은 한 그루의 나무가 꽃을 피우고 꽃이 진 뒤 열매를 맺는 과목(果木)의 모습을 통해 깊은 성찰을 이뤄낸다. “나날의 뜨거운 열망/이슬찬 과육으로 빚어//충만한 낙일처럼 떨어져 갈/어느날 찬란한 목숨의 여운”¹⁷⁾으로 그려지는 나무의 열매 맺음에서 시인은 보편적인 삶의 법칙을 발견한다. 환하게 피어오르는 꽃들이 지는 것 또한 인연의 만남과 헤어짐과 같으며, 그 슬픔 속에서 열매는 맺어진다. 아픔을 인내함으로써 맺어진 열매는 또다른 나무를 키워내는 다음 세대로의 영속이자 새로운 생명력이다. 그러므로 밤마다 눈물을 지으면서도 마침내 열매를 맺어내는 나무의 이미지는 무너진 세계를 재건할 가능성으로서의 생명력이며, 영원히 이어질 세계의 법칙이다. 이제 시인은 나무의 생에서 인내의 시간을 읽어내고, 그것을 자신의 삶과 시작(詩作)으로 연결 짓는다. 고통을 감내하는 개인의 시간이 누군가에게 읽힘으로써 매번 새로이 생명을 얻을 한 편의 시로 태어나는 것이다.

꽃잎으로 에워싼

노란 암술 하나

점에서 홍윤숙의 시편들이 나무의 상징을 여성적인 생명력의 가능성을 벗어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경수, 『1950년대 여성시의 지형과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 김남조와 홍윤숙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1, 2009 참조

16) 이지자·올리비에리·스크트릭 공저, 장영수 옮김, 『문학의 상징·주제 사전』, 청하, 1980, p.51.

17) 홍윤숙, 『과원일기』, 『風車』, 신흥출판사, 1964, p.150.

한가슴에 받들 듯
긴 세월 남몰래 키워온 말입니다

해와 달이 바뀌어가는
日月의窓밖애
사철의花色이 스며드니
달랠 길 없이 타오르는 목줄기
머리채 검고 눈빛 젖은
나이 찬 계집애로 자라나서
막을 길 없이 달려가네요

어느 날 내가 당신 앞에
그 말 한 마디를 드리고 나면
나는 그만 하늘 끝에 닿아버린
저녁 해
까맣게 타버린 꽃씨입니다

그 말 한 마디만이
그 가슴에 남아
뿌리 고운 사슴으로 살이주기를
오래오래 향기되어 피어주기를

-『詩의 슬픔』¹⁸⁾ 일부

“긴 세월 남몰래 키워온 말”을 까만 꽃씨처럼 다른 누군가의 가슴에서
날려 보내고 그것이 또다른 나무가 되어 꽃을 피우고 향기를 풍기기를 바
란다는 화자의 마음은, 그 자신이 “뚝뚝 떨어져 가버릴/오월 어느 날의 꽃

18) 홍윤숙, 『詩의 슬픔』, 위의 책, p.156-158.

잎”으로 남더라도 행복하리라는 고백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이 고백에 활용되는 주요한 이미지로 꽃이 시들고 열매를 남기는 나무의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다. 두 번째 시집 『풍차』에 실린 위 시는 「과원일기」 연작 뒤에 배치되어 있다. 시집을 엮어낼 때에 시편의 순서와 배치에도 의도와 메시지가 숨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과원일기」 연작 바로 뒤에 「시의 슬픔」이 실린 것은 홍윤숙의 시세계에서 폐허에서 성장하는 수목적 생명력이 한 개인의 유한성을 초월케 하는 ‘영원의 시’의 세계로 연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화자는 그 자신의 소멸을 처연하고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도리어 그 존재의 사라짐은 긴 시간 동안 내면을 들여다보며 꽃술처럼 피워낸 시 한편을 남긴다. 시인이라는 한 존재가 꽃처럼 소멸한 이후에도 시는 남아서 누군가의 마음에 새로이 꽃을 피울 것이다. 혹독한 계절을 견뎌내는 나무의 인내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시의 영속성을 맺어낼 수 있는 것이다. ‘시인’으로 존재하는 한 개인은 비록 “어느 날의 꽃잎”이 되어 시들지만, 남은 말이 씨앗이 되어 또 한 그루의 나무를 빚어내리라는 상상력은 ‘시’와 ‘나무’라는 영원한 존재와 이를 빚어내는 한 존재의 허무함, 그리고 초월성에 대한 환희로 이어진다. 따라서 제목이 말하는 시의 ‘슬픔’이란, 영원의 언어를 남기는 한 개인의 필연적인 슬픔이다.

심지어 시인 스스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의 거리에서 한 조각의 빵으로도 바꿀 수 없던 시”¹⁹⁾는 폭력의 시간 동안 철저히 무용(無用)하였으며, 시를 쓰는 것은 “어이없는 일에 피를 흘리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인은 결코 한 유한한 존재의 허무한 소멸이나 “철저히 무용”한 시를 읊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위 시의 화자는 “잘리운 나무의 생생한 연륜을/다시 새기듯/흰 원고지 까맣게 먹물 풀어/

19) 홍윤숙, 「시를 위한 산문」, 『夏至祭』, 문지사, 1978, p.119.

쓰고 또 써도 풀리지 않는/목마름”²⁰⁾을 인내하며 언어를 빚어내며, 이로써 역설적으로 영원히 읽힐 “존재의 한 마디 증언”을 남기고자 한다. 일견 의미 없어 보이는 한 편의 시는 한 개인이 존재하였음을 영원히 증명할 것이다. 때문에 개인의 고통과 유한한 삶은 새로이 의미를 얻어 영원히 누군가의 가슴에 남으리라는 환희에 찬 확신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한다.

즉, 초기의 시편들에서 홍운숙은 엄혹한 현실을 이겨낼 생명력의 가능성을 수목적 이미지에서 찾는 데에서부터 문학적 성찰을 시작한다. 이러한 수목의 생명력과 풍요로운 ‘나무’의 이미지는 한 존재가 소멸한 후에도 영원히 반복될 삶의 보편 법칙과 영원한 시간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견해내는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는 나무에 핀 꽃과 열매 맺음을 통해 영원한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소멸하는 한 존재의 유한성과, ‘시’라는 존재의 의미로 완성되는 열매 맺기의 이미지로 발전된다.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허덕이면서 원고지를 채워나가던 어느 날 문득, 발견한 ‘늪어가는 여인’의 자화상은 한 존재의 소멸과 영원성에 대한 의미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한 계기가 된다. 다만 “목숨의 하찮은 근원을 이제사 알게 하” “원색의 회랑”²¹⁾과 같은 수목적 이미지에서 겨울 속의 자신과, 그리고 일상 속에서 순간적으로 현현하는 시간의 순간성과 마주하는 방식으로 선회한다. 수목적 이미지를 통하여 발견하고 구축한 소멸과 시간, 존재의 의미라는 문제를 일상 속에서 발견하고 문제의식을 심화해나가는 전환점이기도 한 것이다.

20) 홍운숙, 『가을의 기도』, 위의 책, p.64.

21) 홍운숙, 『原色의 廻廊』, 『風車』, 신홍출판사, 1964, p.81.

Ⅲ. 일상성의 발견과 실존적 인식으로서의 시간의식

.....裝飾은 이제
 풀밭에 부서진
 여름날 玩具
 사랑도 裝飾 같은
 기억 속의 季節

-「裝飾論 4」 부분²²⁾

『장식론』 연작시는 나이 듦과 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섬세한 고찰이 돋보이는 홍윤숙의 대표작이다. 이 네 편의 『장식론』은 세월의 변화에 따라 외면의 변화를 겪는 여인의 쓸쓸함과(『장식론1』) 이전의 열정과 꿈을 잃어가는 고백(『장식론2』)을 거쳐 사랑과 관계맺음의 방식이 변모하고 있음을 고민한 끝에(『장식론3』) 마침내 그 장식을 벗어내는(『장식론4』)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앞의 세 편이 젊음을 잃어가는 만큼 장신구를 착용하여 마음을 달래는 여인의 내면을 사유하는 데에 반하여 마지막 시편에서는 마침내 이러한 욕망 또한 떨어내고 “진한 아픔을/조용한 하강 속에/견디는”(『장식론4』) 여인의 모습을 그려낸다. 여성에게 나이 듦이란 외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부의 우주가 사위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홍윤숙은 여러 편의 시 작품을 통해 나이든 여성의 고독에서부터 삶의 이치를 이해하고 인내하는 과정까지를 심도 있게 보여줌으로써 여성 주체가 겪는 내적 갈등의 단계를 효과적으로 재현해낸다.

이 연작시편에서 마침내 화자인 여성 주체가 발견하는 것은 생의 장식을 떨어내고 “바람속에 피 흘리는/십자가처럼” 소멸을 견뎌내는 방식이며

22) 홍윤숙, 『裝飾論 4』, 『裝飾論』, 하서출판사, 1968, p.34.

무엇보다도 그 상실의 고통을 겪는 내면의 자아이며. 이러한 주체의 인식의 계기는 여성 주체의 나이 듦이다. 그러나 홍운숙의 시는 ‘여성 주체’라는 젠더적 문제에 국한하기보다는 뛰어넘어 한 실존적 개인의 문제로 나아간다. 이로써 홍운숙 시세계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인 인간 존재의 보편적 조건인 소멸과 시간에 대한 성찰이 심화된다. 『장식론』을 거쳐 네 번째 시집인 『일상의 시계 소리』에 접어들면서 개인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는 구도의 과정으로서의 시작(詩作)과 나무의 이미지는 점차 일상의 장면들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나무’로 대표되는 자연의 법칙에 향하던 시선들은 일상의 순간에서 포착되는 ‘시간’과 ‘소멸’에 대한 인식을 향해 기운다.

생활이
말장게 가라앉아
투명한 수정으로 빛나는
아침 食卓에
이가 시린 겨울사과를
썰면
있는 금시 물이 돌는
칼날이 된다

세상은
썰수록 커 가는
不在의 둥근 사과
이가 시린 사과 속에
손을 담그면
멧었던 日常의 時計 소리도
여울져 오고.....

-「日常의 時計 소리」²³⁾ 부분

홍운숙은 일상은 “너무도 확연한 자명성 때문에 인간의 정신이나 삶을 깊이의 차원에서 가로의 차원으로 대치”시키는 “하나의 상식 속에 갇힌 삶의 형태”²⁴⁾라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일상은 같은 궤도를 달리는 노선버스와 같으며, 끝없이 바위를 밀어 올리는 시지프스의 신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처럼 자명한 반복 속에서도 “상식화되고 통속화하여 죽어버릴 존재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내고 재발견”하는 것이 예술가의 사명이다. 홍운숙은 시인의 윤리에 입각하여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사물과 세계의 본질을 인식하고자 한다. 평범한 아침 식탁에서 인간의 시간을 직각하는 순간은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에서 인한 것임에 분명하다. 이는 시집 『일상의 시계소리』와 『타관의 햇살』, 『하지제』에서 두드러지는데, 표제작인 위의 시는 개인 존재의 유한성을 일상의 한 순간 속에서 포착해내며 한 개인의 존재와 근원적인 불안에 대해 성찰하는 홍운숙 시편의 경향을 잘 드러낸다.

화자는 아침 식탁에서 수정처럼 빛나는 생활을 발견한다. 아침 식사로 겨울사과를 써는 평범한 시간은 의미 없이 흐르는 것처럼 인식되기 쉬우나, 사실은 죽어가는 시간들이 쌓이는 과정이다. 과거의 순간들은 이미 지나갔으며 사과를 썰어나가는 일상조차도 세계 내에서 나의 부재(不在)에 근접해가는 시간들이다. 때문에 그녀가 “부재의 둥근 사과”를 썰어나갈수록 도리어 그 사과는 점차 그 부피를 늘리며, 이에 비례하여 일상의 시계소리 또한 점차 크게 들려온다. 기독교적 상징 속에서 사과가 가진 의미를 떠올린다면, “썰수록 커 가는 부재의 둥근 사과”에 손을 담그면 들리는 일상의 시계소리는 원죄를 지닌 인류의 시간을 인식하는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를수록 도리어 커져가는 사과역설은 ‘과거’라는 이름의 시간이 쌓일수록 부재(不在)에 더 가까워지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의미

23) 홍운숙, 『日常의 時計 소리』, 『日常의 時計 소리』, 문연사, 1971, p.15.

24) 홍운숙, 『시정신과 일상의 지평』, 『京義線 보통열차』, 문학세계사, 1989, p.114.

한다.

그러나 신의 영역의 반대 항에 놓인 인간의 유한성은 역설적으로 시간에 대한 침예한 인식을 이끌어낸다. 무한히 연속되는 시간을 과거와 현재, 미래로 분할하여 구분하기 위해서는 ‘영원’이라는 한 절대적 축이 필요하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현재는 시간과 영원성이 교차하는 ‘순간’에 포착된다. 이는 영원이라는 시간 바깥의 개념을 시간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역설의 방식이다. 이 역설적인 방식을 통해 순간은 다시 영원을 포함하는 존재론적 모순을 불러일으키며 인간의 시간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다. 홍운숙의 시세계가 포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순간들이다. 그녀의 시편들은 과거와 현재가 혼용하면서 미래로 향해 열리는, 그 자체로서 충만한 순간의 장면들을 보여준다.

하얗게 일어선 殺氣의 물결
아무도 그 사나운 가슴을
制馭하진 못했다

그때,
우리의 가슴을 쓸어가던
열다섯 살의 어린 파도
스물다섯의 팽팽한 파도들은
지금 大洋 밖 어느 지점을
달리고 있을까

단 한번도
작은 지혜와 타협하지 않던
고독한 放浪兒,
젊은 파도는

스무 살의 혈기와 만발한 꽃밭을
바다에 散花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 우리의 內陸에선
녹아내리는 都市의 臟腑와
타다 남은 해바라기
쇠잔한 家族들이
철솥처럼 끓으며 여름을 앓는데,

-「바다를 위한 메모2-우리가 젊었을 때」²⁵⁾ 부분

바다 앞에서 화자는 젊은 시절에 경험한 “살기의 물결”을 떠올린다. 그 거센 파도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강렬한 기억이자 생존에의 위협이었다. 하지만 존재의 무력감과 공포를 일으켰을 바다의 모습은 “대양 밖 어느 지점”을 달리고 있을 먼 곳의 위협이다. 지금 바다의 앞에서 있는 화자는 당시의 파도만큼이나 강한 혈기를 세월의 물결에 흘려보냈고, 이제 바닷가는 생존의 치열함을 대표하는 곳이 아니라 녹아내리는 도시의 여름을 피해 방문하는 휴식의 공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의 물결”에 대한 기억은 화자를 과거로 끌어당긴다. 이 기억은 현재와 과거의 바다를 겹쳐내면서 즉각적으로 ‘지금’이라는 순간을 인식하게 한다.

이처럼 직관적으로 과거의 한 순간이 되살아나면서 불안을 일으키는 장면들은 홍윤숙 시세계의 시간관에 대한 흥미로운 점들을 드러낸다. 예컨대 「바다를 위한 메모」는 그 스스로가 밝힌 것처럼 피난길에 당한 선박 침몰 사고와 연관되어 있으며, 「비정」은 어린 시절 정육점 앞에서 목격한 동물의 사체에 대한 강렬한 기억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는 시인 개인이 겪은

25) 홍윤숙, 「바다를 위한 메모2-우리가 젊었을 때」, 『他關의 햇살』, 유림문화사, 1974, pp.58-59.

유년시절의 기억이, 현재의 일상생활과 겹쳐지면서 만들어내는 낯설고도 생경한 경험이다. 『바다를 위한 메모』 연작시에서는 피서로 방문하여 마주한 평온한 바다의 풍경과 배 속의 사람들이 물살에 쓸려가던 “절체절명의 운명”²⁶⁾에 대한 공포가 동시에 나타낸다. 또한 시 『동화가 있는 거리』에서도 화자는 지하도를 건다가 문득 낯선 감각과 함께 “시간의 벽을 뚫고/살아나는 얼굴들”을 발견하기도 한다. “목만 남은 얼굴들”²⁷⁾이 파편화된 기억들으로써 화자의 앞에 나타나 어른이 된 현재의 한 순간에 유년시절의 한 순간이 겹쳐지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경험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며 현재의 시간과 겹쳐지는 무의지적 기억의 체험이자, 개인적이고도 집단적인 역사가 현재에 집약되어 파편적으로 재현되는 문제적 장면들이다.

사과를 써는 아침에 들리는 시계소리나 유년의 슬픈 얼굴들이 문득 떠오르는 지하도의 경험처럼 유한한 존재의 기억이 즉자적으로 인식되는 이 현현의 순간은, 균일한 전통적 시간의 개념과 달리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존재하고 경험되는 시간이다. 홍윤숙이 일상의 ‘순간’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시간의 조각들이 현재와 겹쳐지며 과거-현재-미래로 충만해지는 ‘지금 시간’인 것이다. 이 같은 시간 의식은 벤야민이 말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사라져가는 ‘현재’를 인식하려는 노력이며 균일한 역사관에 대항하여 현재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단절적 역사관과의 연관선상에 있다.²⁸⁾

기억은 파편적인 동시에 연속적이다. 연속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주체의 구성의 한 축을 담당하는

26) 홍윤숙, 『바다를 위한 메모1-바다에서 우리는』, 위의 책, p.56.

27) 홍윤숙, 『동화가 있는 거리-지하도에서』, 『日常의 時計 소리』, 문연사, 1971, pp.32-33.

28) 벤야민의 단절적 역사관에 대하여는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 길, 2008 참조.

유년의 기억은 정신분석학이 개인의 무의식을 읽어내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다. 주체를 구성하는 기억들이 무의지적으로 현재화 되는 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역사적 체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홍윤숙의 시편들 속에서 현재와 과거가 겹치는 순간들은 그 자체로서 결코 끝나지 않을 영원의 세계를 향해 열려 있다. 시를 창작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질되지 않을 ‘지금시간’의 영원성이 만들어내는 긴장. 홍윤숙의 시가 성취해낸 존재에 관한 근본적 성찰의 장면들이다.

IV. 존재의 소멸과 시원(始原)을 향한 근원적 회귀의식

홍윤숙의 시는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성적인 한편으로, 개인의 일상 속에서 구도자적 입장을 취하며 내면의 감정들을 세밀하게 조율하는 감성적 특성을 조화롭게 엮어내는 시적 성취를 보여준다. 특히 후기에 속하는 시편들에서는 현재에 현현하며 개인의 역사를 되새기게 하는 과거의 기억을 탐색한다. 내재한 생명력으로서의 나무에서 시작하여, 영원의 시간과 일상의 순간을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를 모색하던 홍윤숙의 노정은 이제 근원을 향하기 시작한다. 홍윤숙의 시세계에서 비교적 후기에 속하는 시집 『경의선 보통열차』는 그 정체성의 축이 되는 기억들을 재생하고, 유년시절과 부모를 떠올리는 이른바 ‘뿌리 찾기’의 노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내 잔가지 어디쯤 어두운 핏줄로 닿아 있을 뉘 그로부터 약관 열아홉의 그의 독자는 파산한 가계의 명운을 지고 곤충 같은 목숨의 혈족들을 끌고 약

속도 없는 땅을 유랑했다

한 시대 白刃의 칼날을 밟고 풀잎처럼 건너다 사라져간 父祖들의 길
-『뿌리-略歷1』²⁹⁾ 일부

아득한 물에선
그때도 삼월엔 진달래 피고
팔월엔 유도화가 만발했지만
가지에 달린 한 쌍의 거미 같은
어미와 딸은
뚫어진 어망 한 끝에 달려
물으로 가는 거룻배 한 척 기다리며 기다리며
무한절해 새털 같은 날을
하얗게 부서져 내리는 낫달이 되고
쏟아지는 폭우 속
생쥐처럼 젖어서 돌아오는 무지개였지
이차대전 막바지
날마다 사나운 삼끝에
덩굴째 찍히던 꿈의 뿌리들
지금도 기억의 살 속에
유리처럼 박힌 스무 살 안팎

-『덩굴째 찍히던 꿈의 뿌리들-略歷3』³⁰⁾ 일부

인용한 두 시편들은 모두 ‘略歷’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이른바 ‘약력’ 연작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인 작품 ‘뿌리’는 조부와 아버지 세대가 살았던 평안북도에서부터 뿌리 찾기를 시작한다. 역마살 바람에 북간도

29) 홍윤숙, 『뿌리-略歷1』, 『경의선 보통열차』, 문학세계사, 1989, p.11.

30) 홍윤숙, 『덩굴째 찍히던 꿈의 뿌리들-略歷3』, 위의 책, pp.14-15.

를 떠돌다 만세 운동으로 고초를 겪은 뒤 눈을 감은 조부의 이야기는 개인이 경험한 역사적 사건의 상처로 화자에게 남아있다. 조부의 죽음은 파산한 가계의 명운을 지고 유랑해야 하는 독자(獨子)인 아버지의 운명과 연결된다. 아버지의 생은 조부의 생이 그러했던 것처럼 “구름을 잡는 객관의 봉긋방 바람”³¹⁾이었다. 부재하는 조부와 아버지는 화자에게 쓸쓸한 유년의 기억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개인의 삶에 그들을 드리우는 역사의 상처로 인식된다. 예컨대 정식화된 역사 속에서 독립 만세운동은 숭고한 민족정신의 표출이자,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입되어 있다. 그러나 화자에게 만세운동은 조부의 수난으로 기억되며 아버지 세대의 아픔을 촉발시켜 화자로 하여금 어두운 유년시절의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칼날을 밟고 풀잎처럼 건너다 사라져간” 수많은 아버지들의 길이며, 승리로 점철된 역사의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처의 이력이다.

한편 「덩굴째 찍히던 꿈의 뿌리들-약력3」은 화자의 청년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차대전기의 막바지였으며 꿈이 있는 스무살 나이였으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꿈을 펼치지 못하던 시기였다. 무엇보다 그에게 선명한 것은 어머니와 함께 물으로 가는 거룻배 한 척을 기다리던 기억이다. 이 장면이 화자에게 선명하게 남아 있는 이유는 “뚫어진 어망 한 끝에 달려/물으로 가는 거룻배 한 척”을 기다리던 막막함이 희망이 좌절된 세계에 대한 상징적인 장면으로서 인식된 까닭이다. 이 장면은 꿈이 좌절된 시대에 살던 스물 안팎의 화자에게는 언제 도래할지 알 수 없는 긍정적인 미래를 향한 막연한 기다림이자, 어두운 청년 시절의 집약체로서 화자의 기억에 남아 있다. 그것은 마치 “기억의 살 속에/유리처럼 박힌” 한 개인의 역사이다. 시 속에서 화자가 재생해내는 장면들은 거대 역사와 개인의 체험

31) 홍윤숙, 『저 혼자 눈뜨던-略歷2』, 위의 책, p.12.

이 마주하는 충격의 순간으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

프리모 레비에 의하면 역사는 승리자의 입장에서 인간 세계의 넘쳐흐르는 사건들을 갈등으로, 갈등을 우리와 그들의 대결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³²⁾ 이로 인하여 하나의 사건에 존재하는 균일하지 않은 다양한 목소리들은 정식화된 역사 속에서 소거되고 잊힌다. 그러나 진정으로 인간의 역사를 구성하는 것은 소수의 승리자가 아니라, 다수의 잊힌 자들이다. ‘약력’이라는 부제를 단 홍윤숙의 시편들은 개인이 경험한 역사적 질곡이 어떠한 충격으로 기억에 남아있는가를 통해 잊힌 역사의 주인들을 복원해내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단지 아버지 세대의 주체들을 호명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조부들의 역사는 화자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세대가 지나온 역사의 부침을 화자 또한 겪어내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시집 『경의선 보통열차』에 실린 시편들이 ‘약력’이라는 부제를 단 아홉 편의 시들과 「아리랑 별곡」, 「망향사」와 「어머니」의 부제를 붙인 다수의 시들로 구성되어 있음은 주목을 요한다. 잊힌 개인들의 체험을 재생함으로써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기존의 이분법적인 인식 체계를 바탕으로 한 역사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대안인 것이다. 잊힌 소수의 목소리들을 재생하는 것은 사건의 내부에 자리한 충격과 균일화 될 수 없는 경험의

32) 프리모 레비는 수용소의 경험을 기록하고, 이를 사색한 저작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에서 역사가 범하는 단순화의 경향에 대해 지적한다. 역사를 이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민중사를 포함한 정식화된 역사는 수많은 사건들을 나와 타자의 갈등과 대결로 축소하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독자들은 승자를 선한 자로 동일시하며 내부의 ‘우리’와 외부의 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인간의 역사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화는 사건의 내부에 자리한 희생자와 박해자, 혹은 우리와 그들로 축소할 수 없는 비균질한 문제들이 시사하는 바를 포착하지 못하고, 도리어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오류를 범한다. -프리모 레비, 이소영 옮김,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돌베개, 2014 참조.

차이들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홍윤숙의 시는 ‘약력’으로 구성된 새로운 역사의 가능성 탐색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 거대 역사와 개체에 대한 성찰 또한 유한한 개인이라는 한 존재와 영원의 시간의 긴장이라는 홍윤숙 시편의 큰 문제의식과 일치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이른바 『약력』 연작이라 할 수 있는 시의 마지막 편인 『허물 벗기-약력8』에 이르면 화자는 마침내 “쓸쓸한 한 생애 허물벗기”를 마치며 “나의 추운 영혼의 골짜기”³³⁾와 마주한다. 이로써 시를 통한 ‘뿌리 찾기’의 마지막 과정은 존재의 시원(始原)으로 향한다.

타관의 남은 햇살 조금씩 옅어지고
 그 길에 밤엔 자주 비가 내린다
 만성 기관지염 쿨룩거리는 마른 늑골 사이로
 온종일 덜컹대며 지나가는
 오십 년의 길고 긴 무쇠 차바퀴
 검정고무신의 소년들 떼지어 몰려오는
 별관의 기적소리도 살 속에 박혀 있다
 그렇게 떠난 길에 바람 그리도 이빨을 갈며
 어리디어린 맨발의 꿈들을 무찌르더니
 이제는 저 혼자 저절로 뿌리부터 말라서
 삭아가는 풀
 삼복염천에도 발이 시린
 옅은 백노지 한 장 깔고 누운 露宿의
 자리는 늘 비에 젖어 잠들지 못하고
 어찌다 이슬비 갠 날 아침 세상은
 거미줄에 반짝이는 물방울까지
 눈부신 이승의 말쑥으로 들린다

33) 홍윤숙, 『허물 벗기-略歷8』, 앞의 책, p.23.

창세기 실낙원의 설화 같은 보랏빛 도라지꽃
 도라지꽃 한송이에 가슴 무너지는
 타관의 남은 햇살 너무 짧고
 등 뒤의 그림자 키를 넘는다
 그 끝은 이미 어둠에 닿아
 보이지 않고

-『他關의 햇살 그 後 -놀이37』 일부³⁴⁾

지상에서 보내는 일상들은 고향이 아닌 타관에서의 날들이었다. 고향이 아닌 거리에도 내리쬐던 햇빛과 타관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던 삶의 의미들은 조금씩 열어지고 사라져간다. 여전히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역사의 충격들도 살에 새겨져 있으나 화자는 어느덧 아침의 소소한 풍경들에서도 “이승의 말씀”을 발견한다. 등 뒤의 그림자가 키를 넘는 저물 무렵이 되어 그림자의 한 끝은 어둠에 닿아 있다. 영원의 세계에 향할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뿌리 찾기의 마지막 노정은 피안으로의 회귀로 이어진다. 유년시절의 기억과 조부세대의 아픔을 성찰하던 개인의 근원을 향한 탐색은 마침내 개인에서 벗어나 인간 존재의 시원(始原)으로 향하는 것이다. 화자는 작은 물방울에서도 너머의 세계를 발견하고 태초의 창조가 이루어졌던 실낙원의 설화를 떠올린다. 그 설화의 시간은 머나먼 과거의 시간이지만, 그 자체로서 완결된 영원의 시간이다.

이제 일상의 한 순간 속에서 충만한 ‘지금시간’을 발견하던 화자는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완결된 영원의 시간을 실감한다. 흥운숙의 시세계에서 가장 목직한 무게감을 증명하던 존재의 소멸에 점차 가까워지는 순간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0년에 발간된 시집 『마지막 공부』에까지 이어지는 ‘놀

34) 흥운숙, 『他關의 햇살 그 後-놀이37』, 『落法놀이』, 세계사, 1994, pp.63-64.

이」 연작 시편들이 의미하는 것처럼 죽음은 점차 유년시절의 유희처럼 가벼워진다. 이는 “무거움으로서의 존재인식을 거듭 가볍게 함으로써 소멸의 고통을 정화”³⁵⁾하고자 하는 화자의 노력이자,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현재에서 과거로, 유년의 시절로, 그리고 생을 부여받기 전으로의 회귀는 시인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던 근원을 향한 탐색 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다.³⁶⁾ 이전까지 그의 시편들이 도처에 만연한 죽음과 나무의 생명력이나 일상과 순간적으로 포착되는 충만한 시간의 감각처럼 존재와 시간에 관한 상반된 인식 지평을 보여주었다면, 『낙법놀이』에 이르러서는 소멸과 영원성의 문제에 천착하기 시작한다. 죽음은 지상에서 한 존재의 소멸이지만 동시에 시원의 세계로의 회귀이기도 하다.

홍윤숙의 시는 죽음을 어린아이의 놀이로 전유하면서도 그 너머에 존재하는 세계에 지속적으로 시선을 던진다. 태초 이전에 존재하는 시원의 세계를 향한 시인의 탐색은 이후 『실낙원의 아침』으로 이어진다. 이 작품집에 묶인 『십자가』 연작 시편들은 인류의 근원적 문제인 원죄와 희생에 대한 심도 깊은 성찰을 계속한다. 예수의 희생과 신의 사랑을 담담히 읊고 있는 이 시편들은 “나의 세상의 언어로는/열리지 않는 문”³⁷⁾으로 신의 존재를

35) 엄경희, 『홍윤숙 시인의 삶과 시정신』, 『승실어문』 제17집, 2001.

36) 김귀희의 글은 홍윤숙의 시 전체를 조망하고 그의 시세계에서 소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점에서 유효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홍윤숙의 시세계가 소멸의 미학에 구축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중기에 해당하는 시편들에서 외적 요인들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던 화자의 태도가, 후기 시에서는 관조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세계와 융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일상의 시계소리』에서 『타관의 햇살』에 이르는 수많은 시 작품들이 일상의 순간에서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충만한 순간의 완전성을 획득하고 있으므로 도리어 세계 내에 존재한 주체로서 세계를 조화롭게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까닭이다. -김귀희, 『홍윤숙 시 연구』, 『비평문학』 20, 2005 참조

37) 홍윤숙 『나의 십자가-십자가34』, 『실낙원의 아침』, 열린, 1996, p.82.

인지한다. 신의 존재와 그의 세계는 미래로 열린 영원의 공간이자, 무한한 시간의 연속이다. 현재는 지나가버리는 ‘순간’과 ‘영원’의 시간이 동시에 존재할 때에야 비로소 정립될 수 있다. 일상의 순간에서 영원을 발견하고, 그 근원을 찾기 위한 노력은 마침내 유년시절의 기억과 조부세대의 아픔, 그리고 놀이를 통한 ‘아이 되기’를 거쳐 태초의 세계에 다다른다.

V. 결론

인간은 인식하기도 전에 사라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 존재의 근본적 조건은 인간을 불안에 빠뜨리지만, 이 불편한 감정은 지극히도 인간다운 성찰의 흔적이다. 인간이 단순히 동물적 존재라면 불안에 빠질 수 없는 까닭이다. 시는 한 개인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본질을 아름다운 언어의 정련으로 구축하는 예술이다. 이는 순간에서 영원을 찾아내고, 유한한 존재 속에서 본질적 존재의 영원성을 포착해내는 고도의 성찰을 요구한다.

그 미적 탐색의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존재의 근원적 물음을 던지는 홍윤숙의 시세계는 바로 이러한 예술의 미덕을 체현한다. 특히 삶과 죽음, 순간과 영원, 유한자와 무한자라는 역설적 관계의 긴장은 그의 미적 세계를 구성하는 주요한 인식이다. 인간 존재의 고뇌와 소멸의 불안은 그의 시편들에 문신처럼 새겨졌으며, 시인의 청년시절에 그들을 드리웠던 두 번의 전쟁 체험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인간 삶의 덧없음을 사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홍윤숙의 시편들은 도처에 만연한 죽음에 생명력으로 대항한다. 특히 초기 시편에 해당하는 작품에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나무의 이미지는 화자가 존재의 불안에 대항하는 방식을 은유한다. 고난을 내부의 에너지로 승화하는 나무의 삶은 불안(詩作)의 원동력으로 삼고, 삶의 의미를

모색하는 시인의 심미적 윤리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를 쓴다는 것은 삶의 순간들, 즉 지금, 여기, 현재에 대한 첨예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일상은 자명하고도 통속적인 반복이나 그 속에서도 화자는 존재의 유한성이 영원과 겹쳐지는 충만한 순간들을 발견한다. 그는 영원이라는 시간 바깥의 개념을 인간의 시간으로 끌어오며 존재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화자에 의해 포착되는 현재의 이 ‘순간’들은 과거와 현재가 혼용되며 미래로 향해 열리는 그 자체로서 충만한 ‘지금시간’의 발견이다. 즉, 홍윤숙의 시에서 무의식적으로 환기된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세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들은 개인적이고도 집단적인 역사가 현재에 집약되어 파편적으로 재현되는 문체적 장면들이자, 무한의 존재를 즉자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유한한 인간 주체를 재발견하는 종합의 순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근원을 향한 탐색은 존재의 시원을 찾는 ‘뿌리 찾기’의 여정으로 이어진다. 시인은 「약력」, 「망향사」, 「어머니」 등의 연작시들을 통해 잊힌 부모세대의 상처를 재현해낸다. 역사에 기입되지 못한 개인들의 목소리를 재생함으로써 연속적인 승리의 역사의 이면에 자리한, 상처의 단절적 역사이다.

그러나 이러한 뿌리 찾기의 노정은 상처의 역사를 기입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간다. 바로 조부 이전의 시대, 태초의 세계로의 귀환이 그것이다. 홍윤숙은 비교적 후기에 해당하는 시편들에서 어린이의 놀이처럼 소멸을 준비한다. 에텐으로 귀환하기 위한 그녀의 ‘어린이가 되기’는 무한의 존재를 인식하고 유한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재정립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인간은 정신”이며,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의, 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자유와 필연의 종합이며, 간단히 말해서 종합이다.”³⁸⁾ 홍

38) 쇠렌 키르케고르, 임규정 옮김, 「죽음에 이르는 병」, 한길사, 2007, p.55.

윤숙의 시는 인간의 정신과 존재의 근원을 향한 치열한 탐색의 과정이다. 죽음과 생명력, 순간과 영원, 유한자와 무한자가 빚어내는 긴장과 이로 인한 존재의 의미 성찰은 홍윤숙의 시편들이 성취해낸 특별한 아름다움일 것이다. 이제 그녀의 시편들에 새겨진 소멸과 존재에 대한 수많은 고뇌의 흔적들은 인간의 정신과 그 주체적 결단을 신뢰하는 한 존재가 엮어낸 상처의 역사가 되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홍윤숙, 『麗史詩集』, 동국문화사, 1962.
 ———, 『과원일기5』, 『風車』, 신흥출판사, 1964.
 ———, 『裝飾論 4』, 『裝飾論』, 하서출판사, 1968.
 ———, 『日常의 時計 소리』, 문연사, 1971.
 ———, 『夏至祭』, 문지사, 1978.
 ———, 『他關의 햇살』, 유림문화사, 1974.
 ———, 『태양의 건넌마을』, 문학사상사, 1987.
 ———, 『경의선 보통열차』, 문학세계사, 1989.
 ———, 『落法놀이』, 세계사, 1994.
 ———, 『실낙원의 아침』, 열린, 1996, 82쪽.

2. 논문 및 단행본

- 김귀희, 『홍윤숙 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홍윤숙 시 연구』, 『비평문학』 20, 2005.
 김인경, 『홍윤숙 초기 시의 실존 의식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40, 2013.
 김현자, 『전쟁기와 전후의 시(1950~1961)』, 오세영 외, 『한국 현대시사』, 민음사, 2007.
 엄경희, 『홍윤숙 시인의 삶과 시정신』, 『송실어문』 제17집, 2001.

- 배옥주, 『홍윤숙 시의 어조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오윤정, 『홍윤숙 시에 나타난 ‘타관’의 공간성 연구』, 『여성문학연구』 38, 2016.
- 유영례, 『홍윤숙 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경수, 『1950년대 여성시의 지형과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김남조와 홍윤숙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1, 2009.
- 이은영, 『1950년대 여성시에 나타나는 애도와 우울-김남조와 홍윤숙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4, 2015.
- 허영자·한영옥, 『한국 여성시의 이해와 감상』, 문학아카데미, 1997.
- 레니타 살레츨, 박광호 옮김, 『불안들』, 후마니타스, 2015.
-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의 외』, 길, 2008.
- 쇠렌 키르케고르, 임규정 옮김, 『죽음에 이르는 병』, 한길사, 2007.
- 아지자·올리비에리·스크트릭 공저, 장영수 옮김, 『문학의 상징·주제 사전』, 청하, 1980.
- 프리모 레비, 이소영 옮김,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돌베개, 2014.

Abstract

A Study of Hong Yun-suk's Poetry

Son, Mi-yeong

The present study examines Hong Yun-suk's poetic world in general. Making her debut in 1947, Hong Yun-suk has constantly worked until 2015, and her poetry asks the underlying questions of human existence through the process of aesthetic exploration. In particular, the tension of the paradoxical relation of life and death, moment and eternity, and finitude and infinity are important themes in her poetry. The process whereby these contrasting properties meet for a moment and synthesize allows the poet to explore in-depth the meaning of existence. This is the characteristic of Hong Yun-suk's poetic world, whereby it achieves its aesthetic manifestation by digging deeply into the problem of time and extinction.

From Her first book of poetry, *Yeosa Sijib*, to *Windmill*, the frequently occurring image of trees signify the possibility of restoration through life force. In other words, her arboreal imagination exerted amidst post-war ruins takes suffering as the motivation of life and reveals the poet's consciousness of existence which seeks the meaning of existence through poetic creation. Writing poetry is connected to the acute perception toward the time of the 'present'. The narrator, in everyday life, discovers the overflowing moment when the finitude of existence overlaps with eternity. The 'moment' of the present captured by the poet is also the discovery of 'now time' which is linked to a future that mingles the past and present.

The memories of the past unconsciously evoked in Hong Yun-suk's poetry affects the perception toward the world of the present. In these problematic scenes, an individual and collective history is integrated at the present and fragmentarily recreated. It is also the moment when the existence of infinite is literally perceived to rediscover a finite human agent. Such an exploration

for human origins carries over to the journey of root finding where the origin of existence is sought after, so that it is even connected to ages before the father and grandfather. This is also the process whereby one becomes the child to accept an infinite death and redefines oneself as a finite being. Thereby, the Hong Yun-suk's poetry completes the process of in-depth introspection toward the origins of existence.

Key Word : arboreal image, extinction, existence, finitude, infinity, consciousness of recurrence, consciousness of time

손미영

소속 :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대학 교수

전자우편 : myshon@kw.ac.kr

<p>이 논문은 2016년 10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12월 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p>
